

불황에도 수입차 쌩쌩…광주·전남 판매 급증

2월 신규등록 1년전比 52%·75% 늘어
차 시장 점유율도 1.9%·1.5%로 껑충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내놓은 '2월 수입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개인 173대, 법인 32대 등 모두 205대로, 지난해 2월 기준 134대보다 52.9%나 증가했다. 수입

차 점유율도 지난해 2월엔 전국 1.5%였지만 지난달엔 1.9%까지 올랐다. 올해 1~2월 누적대수는 475대(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9대(1.7%)보다 48.9% 늘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브랜드는 BMW로 27.7%를 차지했으며 아우디 18.8%, 폴크스바겐 17.0%, 메르세데스-벤츠 8.8%, 혼자 5.5% 순이었다.

전남지역의 지난달 신규등록 대수는 개인 135대, 법인 25대 등 160대로, 지난해 2월 93대와 비교해 75.2%나 늘었다. 점유율은 지난해 2월 1.0%였으나 지난달엔 1.5%까지 상승했다. 올해 누적대수도 329대(1.4%)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대, 1.1%)과 비교해 59.7% 증가했다.

전국기준으로는 1만556대가 신규등록돼 전년 같은달보다 15%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2월 수입차 신규등록은 계절 요인과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줄었지만 같은 2월 국

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판매(9만 8826대)가 지난해 2월보다 12.5%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올해 1~2월 통틀어서는 전국에 2만2901대가 등록돼 전년 같은달보다 22.9%나 증가했다.

전국별로 볼 때 2월 등록 차량 중 2000cc 미만은 53.2%를 차지했으며 2000~3000cc 33.7%, 3000~4000cc 10.6%였다.

디젤차는 60.3%에 달했다. 가솔린 차는 36.3%, 하이브리드차는 3.3%였다. 개인 구매는 57.1%로 법인 구매보다 많았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서울 1783대(29.6%), 경기

1607대(26.7%), 부산 415대(6.9%)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2583대로 가장 많았으며 폴크스바겐 1552대, 메르세데스-벤츠 1404대, 아우디 1308대, 토요타 495대, 포드 481대가 뒤를 이었다. 초고가 브랜드인 벤츠로도 5대, 폴스토이스도 2대가 새로 등록됐다. 유럽 브랜드가 76.6%에 달했고 다음으로는 일본 15.6%, 미국 7.8% 순이었다. 가장 많이 등록된 차는 BMW 520d(676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497대), 토요타 캠리(310대)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남구 '효천2지구 종흥S-클래스' 경쟁률 3.3대1 청약 마감

광주 남구 '효천2지구 종흥S-클래스' 아파트가 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흥건설은 7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청약 접수 결과 총 청약은 2171 건으로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m²(25.4평) A형은 1순위에서 일찌감치 마감됐고 113m²(34평) 형은 3순위에서 4.5대, 84m²(25.4평) B형은 3순위에서 최고 경쟁률 9.65대1을 기록했다.

종흥건설 관계자는 "효천2지구의 관심이 그동안 높았고 최근 종흥S-클래스의 상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아

파트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심이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흥건설은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 '종흥S-클래스 리버티'를 계약 시작 5일 만에 100% 공급했고 오는 4월에는 나주혁신도시에 1246실의 대규모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효천2지구 종흥S-클래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나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광주 서구 농성동 주택전시관에서 진행한다. 문의(062-364-000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에어백 믿다간 '큰 코'

2010~2012년 미작동 525건…불만사례 79%

자동차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에어백 불만 사례 668건을 분석해 보니 에어백 미작동이 전체의 78.

6%(525건)로 가장 많았다.

'에어백 자동 작동·에어백 경고등 점등'(5.8%, 39건)도 있었다.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 피해 91건을 조사해보니 '전치 5주 이상'이 전체의 26.4%(24건)였다. 이들 부상자 가운데 장애 6급 진단

을 받거나 전신 마비도 있었다. 사고 후 차량 처리는 '폐차'가 38.5%(35건)로 최다였다.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을 넘는 사례가 35.2%(32건)에 달했다.

에어백 미작동 사고 후 91명 가운데 90.1%(82명)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제있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백 성능 검증제도 마련과 종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업 임원들은 에쿠스를 좋아해 차 선호도 설문 27% 응답

기업 임원이 가장 많이 타는 차는 현대차의 에쿠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7일 지난달 24~28일 직장인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가 소속된 회사의 임원이 타는 차종은 에쿠스가 27.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랜저(11.7%), 제네시스(11.1%), 쏘나타(6.4%), SM5(5.5%), K7(4.7%), 벤츠 S클래스(3.5%), 체어맨(3.3%), K9(3.1%), K5(2.7%)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임원 차는 수입차(15.2%)보다 국산차(84.8%) 비율이 높았으며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기업(95.3%), 대기업(86.6%), 중소기업(86.6%), 외국계 기업(60.8%) 순으로 국산차를 사용했다. 임원 차의 색상은 검은색이 과반수(51.5%)를 차지했고 화색(20.1%), 은색(10.9%), 회색(10.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익산국토청 호남지역 기관장 간담회

광주 12일 무등파크호텔, 전주 13일 리베라호텔

의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12일과 13일 광주와 전주에서 차지단체와 조달청, 공사·공단, 건설협회 등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호남지역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12일 오전 10시 광주 무등파크호

텔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 전남발전연구원장, 광주지방조달청장, 공사·공단 지역 본부장과 건설협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또 1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04.40 (-16.34)

코스닥지수 541.30 (-3.06)

금리 (국고채 3년) 2.66% (+0.02)

원·달러 환율 1087.10원 (+4.50)

리는 전북지역 간담회에는 전북도 관계자와 전북지방조달청장, 익산 상공회의소장, 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여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국토청과 차지 단체 업무계획 설명,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지역 발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순서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증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이정연 이사장 위촉

까지 2년간 중소 기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회장은 현재 광주에 본사를 두고 중국과 베트남 등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일종합기계공업 대표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2006년 우수납세자, 2006년 1000만 달러 수출탑, 2007년 칠암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우일렉 콤비냉장고 日 틈새시장 공략

광주에 기반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맞춤형 제품을 앞세워 일본 냉장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7일 대우일렉에 따르면 일본 싱글족을 겨냥해 소형 콤비냉장고(냉장실이 위에 있고 냉동실이 아래에 있는 형태·사진)를 전략제품으로 삼고, 지난 해 240ℓ에 이어 올해는 150ℓ 제품을 출시해 맞춤형 라인업을 강화했다.

신제품은 냉동식품 소비가 많은 싱글족의 소비행태를 파악해 동급 대비 최대인 52ℓ의 냉동공간을 확보했고, 에너지 소비효율 '3 Star'를 획득, 동급 최고 수준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콤비냉장고는 지난해 누적판매 2만대를 돌파했으며 올해는 50% 증가한 3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원고-엔저' 영향으로 수출 채산성이 나빠졌지만 틈새시장



올 봄 컬러바지가 대세

7일 (주)광주신세계 7층 남성복 지이크 매장

의 아이코닉 바지전문코너에서 고객이 올 봄 유행 트렌드인 컬러바지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을 공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우일렉은 현지 맞춤형 제품을奕 따라 출시하며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일본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3월 중 개강

예쁜글씨 POP & 품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노인심리상담사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가정사역상담사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www.kwangshin.ac.kr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후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회망자
-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고속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스템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2중단열 방수
천정
걸로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ipalz.kr](http://www.ipalz.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1 시공전 / 단열베이스기저공
2 단열베이스기저공 / 트라이슈머 시스템
3 트라이슈머 팔코팅 시공
4 시공 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 실내온도 3~5°C 겨울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